

2019년 창세기 제5강 (광주 7부)
· · · · ·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

말씀 : 창세기 4:1-5:32

요절 : 창세기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말씀은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심성에 죄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가인의 죄는 인간의 심성에 심겨진 죄의 씨앗이 쓰을 내고 자라서 반발심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으로 분출되어 나타났습니다. 죄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고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미음의 고통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인간 내면에 역사하는 죄의 속성과 원악한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가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죄를 통해 구속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가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표(1-15)

첫째, 선을 행하라(1-7)

“아담이 그의 아래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1) 사람이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산통이 있고 기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였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아담은 무척 기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얻어지다)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둘째 아들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아벨’이란 ‘물방울’, 또는 ‘헛되다’란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서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2)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지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3-5a)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炒作’로서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주목하여 보시고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① 믿음의 제사입니다. : 히브리서 11장 4a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점에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 축우와 더위를 이겨가며 양을 돌보는 목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수고를 하고 정성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돌보던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첫 새끼를 얻은 아벨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양의 새끼들 중에서 첫 새끼(the firstborn of his flock)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기름진 부분(fat portions)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좋은 부분으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을 보면 가인이 첫 소산을 드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땅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가인은 외적으로는 아벨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세를 통해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벨의 중심에는 살 아개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축복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 아개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②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멀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배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자신의 현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마음은 자신의 현신에 대해 스스로 많이 희생하고 현신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에 시달리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9-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배를 내밀면서 거만한 자세로 이상한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3)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며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제사란 범죄 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서로 간에 관계성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도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관계성이 회복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지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제사제도는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주 동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고 한 주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비 된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에도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많은 양들을 돌보고 현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송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과 추한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차기 쉽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 마음 준비 없이 참석하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상상16:7b)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요한1서 1:9,10)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상상15:22,23)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인이 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5b)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은 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아래로 떨어졌다’ ‘풀이 죽어 고개를 푹 숙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것을 다 받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 것만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분이 머리끝까지 솟구치고 얼굴이 빨개지고 씩씩거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나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야! 대체 난 뭐야” 가인은 마음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반발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살핍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선한 주권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고 병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 가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 2:10)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했기 때문에 축복의 날이나 환난의 날에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운명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는 운명의 노예가 되어 형들을 저주하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선하신 주권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발견이 없는 가인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됩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6,7) 하나님은 가인의 문제를 잘 아시고 그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닫혀 진 마음을 활짝 열고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 되게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b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느라.”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NIV)은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가 집어 삼킨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It desires to have you”는 말씀은 죄가 너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를 잡아먹기를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는 호시탐탐(虎視眈眈) 사람을 덮쳐서 사로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백설 공주』라는 동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설 공주를 왕궁에서 내쫓은 계모 왕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리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3시간씩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면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마마, 세상에서 마마님이 가장 예쁘십니다.” “호호호 그려면 그렇지. 난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야” 왕비는 이 맛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백설 공주가 점점 숙녀로 자라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거울은 언젠가부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마마, 마마님도 예쁘시지만, 저 숲 속에 백설 공주 아가씨가 훨씬 더 예쁘시옵니다.” “무엇이라” 이 때부터 왕비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없는 백설 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다가 자신이 점점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도 자기보다 더 인기가 좋은 딸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딸들은 만만이로다.” 이에 사울은 심히 노하여 그때부터 모든 국사를 제쳐두고 딸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 세웠습니다. 그러나 딸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창끝은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미움의 짓성(罪性)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8)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과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미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으며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둘째,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8-15)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8)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점점 장성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상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어그러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미움의 감정으로 미움의 감정은 종오의 감정으로 종오심은 마침내 살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잔인하게 쳐 죽였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이미 범죄 한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9a,10a)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 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럴게 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 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검사가 죄수 다루듯이 엄하게 심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런 악한 짓을 했지?” 하며 그를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그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인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발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9b) 하며 대들었습니다.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나요?” ‘지킨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살인죄를 은폐하고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살인죄에 위증죄까지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숨기고 책임전가를 했지만 가인은 속이고 반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11b,12)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땅에서 열심히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저주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벌을 받은 가인의 고통이 어떤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낮을 보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13,14)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죄로 인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인은 죄의식 때문에 짓눌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에 꿈을 잘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꿈에 동생 아벨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혹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 보내 감쪽같이 죽여 버렸지만 그 양심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을 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어둠 가운데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편32:3,4절) 주의 심판의 손이 밤낮으로 자신을 짓누르니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죄의식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봐라, 내가 뭐라고 하드냐, 네 죄벌을 네가 받는 것이 미땅하니라.” 한마디만 남기시고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럴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밟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15)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게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불들려 있다면 자기 잘못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 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비록 자식이 잘못했지만 자기 자식이기에 찾아가서 벌금을 대신 내 주고, 자식을 어찌하든지 데려 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인이 분명히 사형선고를 받아야만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에게 표를 주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죄를 범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가인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달래마이자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했건만 죄를 짓고 나서야 후회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말 안 듣고 집을 나가서 비로소 거지가 되어 봄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는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한계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무 공로도 없고 절한 것이 없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인

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덴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므로 그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의 표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豫表)입니다. 계시록 7:4절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7:10)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린 양,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아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구원의 표가 되듯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종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리”(롬3:25,26)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전폭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는 항상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훈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표가 그를 살리고 위대한 사명인의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당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단지 주님의 긍휼과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요, 반발하고 거역하는 원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주홍글씨와 같은 죄인의 표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을 보장해 주는 생명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벧후3:9, 딤전2:4)

II.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첫째, 가인의 후손(후예)(16-24)

4:16-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애덴 동쪽 농 땅에 거주하더니”(16)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여호와 앞으로 나가’라는 말과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싶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소원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앞을 떠나 애덴 동편 농 땅으로 가 거기에서 거하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본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서 ‘애덴의 동편’ ‘East of Eden’이란 하나님에 없는 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한 땅이 애덴의 동쪽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나님”(17)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이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애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해 성 이름을 그렇

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을 쌓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식을 낳고 가족을 거느린 이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이리 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족과 함께 한 곳에 거주하자니 누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공격해올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람들을 모아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자기 지혜를 의지해 자기 보호, 자기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이후 개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이 이들을 낳고 이들은 므하야엘을 낳고 므하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의 이름은 씰라였더라.”(18,19) 개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애굽을 낳고 애굽이 이들을 낳았습니다. ‘이럿’이란 ‘과시하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럿은 므하야엘을 낳았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훤히도 없이 쓸어버린 자’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에게 불행의 원인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므하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는데 이는 ‘지옥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지옥의 사람 므드사엘이 유명한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휩션 자’란 뜻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후손들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원망, 그리고 자기 과시와 교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의 이름은 씰라였습니다.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을 살펴보면 첫 아내는 ‘아다’요, 둘째는 ‘씰라’입니다. ‘아다’는 ‘꾸민 자’라는 뜻이고, ‘씰라’는 ‘딸랑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정숙한 믿음의 어인을 아내로 얻지 않고 자기 사치를 위해 맨 날 꾸미기만 하고 딸랑거리는 여자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짹으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24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을 거쳐 개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잘 지켜오는 듯하다, 라멕에게 와서 갑자기 한 남자에 두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다는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20-22) 아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연주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천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씰라는 낳은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구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창과 칼로 전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베며 피 흘리고 죽이고 숙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무기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개인을 위하여는 별이 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철심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23,24) 개인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라멕입니다. 그는 개인의 후손을 하나님께 대한 공공연한 반역으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내를 취하고 살인자의 후손답게 사람의 피를 마구 흘렸습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해도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면 소년이라도 마구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소년일지라도 다 죽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칼의 노래’(일명 살인의 추억)라는 시를 지어 자랑삼아 발표했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77배의 복수를 하겠노라는 복수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무력으로 보복한다고 함으로써 아내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개인보다 11배나 더 강력炳이었습니다. 개인의 후에는 피 흘림의 역사를 계속 했습니다.

이상에서 개인의 후예들의 족보와 삶을 살펴 볼 때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다가 개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개인은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된 문화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후손들로 번성하였고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별을 받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 된 세상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이 살아 계시는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는 그 시대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째, 셋의 후손(25-26)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개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애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25,26)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개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25)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 하여 아담과 그 아내 사이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에’라는 말은 아벨의 복음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역사의 희망이 끊어져서 암담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희망의 씨를 다시 주시고 복음역사를 친히 계승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개인을 통해 믿음의 씨가 될 아벨을 죽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친히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온통 개인의 후손들만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셋의 계열을 잇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한 애굽(5:1-32)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系譜)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셋의 후에를 통해 장차 인류를 좌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야가 탄생됩니다. 4장에서 개인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면 5장에서 셋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애굽입니다.

“애굽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24) 이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기서 ‘동행한다.’ ‘walked with God’는 말은 ‘뜻을 따라 산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애굽은 3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25-29절을 보면 애굽 이후 므두셀라-라멕-노아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이롭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죄가 가득한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수고였습니다. 일어십 년이 아니라 몇 백 년씩 이런 수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보았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흥수로 멸망 받게 되고 결국 노아를 통한 셋의 후손만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수 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역사는 또다시 계속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에서 시작된 죄는 후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무거운 죄별로 고통 하는 개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크신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개인의 후손들로 인해 불경건의 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속역사의 희망의 물줄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심령에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역사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캠퍼스 개척과 세례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